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실질금리, 다시 낮아질 것인가 |
| 이슈분석 | 챗GPT로 달라질 금융권의 미래 |
| 금융경영브리프 | Goldman Sachs, 소비자금융 축소 등 사업전략 변경 애플, 간편결제에 이어 후불결제(BNPL) 서비스 출시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은행권 불안에서 경기 우려로 시선 이동 외 환 : 점차 고개 드는 안전자산 선호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종현(jh.kim_)

논단

교수 하준경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
연구원 윤석진(sjyun826)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실질금리, 다시 낮아질 것인가
- 04 **이슈분석** 챗GPT로 달라질 금융권의 미래
- 08 **금융경영브리프** Goldman Sachs, 소비자금융 축소 등 사업전략 변경
애플, 간편결제에 이어 후불결제(BNPL) 서비스 출시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은행권 불안에서 경기 우려로 시선 이동
외 환 : 점차 고개 드는 안전자산 선호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실질금리, 다시 낮아질 것인가*

하 준 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물가불안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점차 물가안정 이후의 금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실질금리 전망이다. 최근 관련 논쟁을 보면, 저축-투자 균형에 영향을 미칠 고령화 효과나 신규 투자수요 행배가 관건이다. 또 실질금리가 상승해도 경제성장률보다는 낮고, 美 중장기 실질금리가 1.5~2%로 올라 명목금리는 4~5%가 될 것이라는 전망 등도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안정적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실질금리보다 경제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초 미국에서 경기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no landing)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상당 기간 저금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10일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급속히 퍼지고 국내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빚을 내 투자를 해야 할 때인지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 ‘리레버리징’의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다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자.

❖ 인플레이션 전망과 실질금리 전망

우선, 명목금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금리를 더한 값과 같다는 교과서 내용을 상기해보자. 따라서 명목금리 전망에는 인플레이션 전망과 실질금리 전망이 혼재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리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중장기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적어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다. 애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폄하했던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큰 ‘일시적’ 파도처럼 보이더라도 곧 끝날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실질금리 전망은 어떤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을 때 실질금리, 또 이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실질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합니다.

상응하는 명목금리가 예전처럼 낮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크다.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장기침체의 위험과 이에 맞선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해왔던 올리비에 블랑샤르 MIT 교수와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실질금리 전망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흥미롭다. 최근 이들이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벌인 금리전망 논쟁을 보면 주요 쟁점들이 잘 드러난다.^[1]

∴ 블랑샤르와 서머스의 금리전망 논쟁

실질금리 추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인지는
고령화 효과의 방향,
신규 투자수요의
크기가 관건

우선 실질금리의 장기 추세에 대한 견해를 보면, 블랑샤르는 코로나 이전 35년간 실질금리는 매우 유의하게 하락해 왔는데 이것은 무언가 근본적인 힘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이 바뀐다면 놀랄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머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예로 들며,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침체와 공황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해 이전과 크게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지적한다.

향후 실질금리 여건의 근본적 변화 여부는 저축과 투자의 균형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블랑샤르는 과잉 저축이 재연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서머스는 저축이 부족해지면서 투자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실질금리가 상당폭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저축과 관련해서 인구구조 변화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블랑샤르는 기대수명이 늘고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애주기상 노후대비 저축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신흥국에서도 노후대비를 자녀의 부양보다는 저축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서머스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저축하는 사람들에 비해 저축자금을 찾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총저축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물론 저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인 정부부채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블랑샤르는 이로 인해 앞으로 5~10년 동안 중립금리가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서머스는 정부부채가 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더욱 크게 평가하는데, 세계정세 불안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중립금리가 1%p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크기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다. 공급망 재편에


[1] "Summers and Blanchard debate the future of interest rates," PIIE, March 7, 2023 (<https://www.piie.com/events/summers-and-blanchard-debate-future-interest-rates>)

따른 리쇼어링, 그린 에너지 투자 등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블랑샤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서머스는 기존 자본스톡이 진부화되면서 투자수요가 유의미하게 늘 것이라고 본다.

이 논쟁에서 서머스는 비교적 구체적인 중장기 금리 예상치를 제시한다. 즉, 인플레이션 기대가 2.5%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고, 실질금리는 1.5~2% 수준이 될 것이므로 리스크와 만기 등을 고려하면 단기금리는 4%대, 장기금리는 4%~5%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블랑샤르는 인플레이션 예상에 대해서는 서머스의 견해를 받아들이나 실질금리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준을 예상하는 모습인데, 실질금리의 구체적인 수준은 어떻든 간에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높게 되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자. 저축과 관련한 고령화 문제는, 노후대비에 주력하는 중노년층 비중이 커지면 과잉 저축을 부를 수 있으나 저축자금을 써야 하는 연령층의 비중이 더 커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중년에 접어든 X세대의 비중이 베이비부머보다 더 크므로 아직은 저축 증가 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초고령층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저축 감소의 힘도 강해질 것이다. 또 투자는 그린 에너지 투자수요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처럼 국내 요인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실질금리를 낮출 요인들이 강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반대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중소기업인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 실질금리 추이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시경제 운용의 관건인 금리, 특히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실질금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 아직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실질금리보다 높지만, 이 관계가 역전되면 재정여력이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인구구조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그린 에너지 투자, 공급망 재편 대응 투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금리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큰 부담. 인구구조 안정화, 그린 투자, 불확실성 축소 등 필요

챗GPT로 달라질 금융권 미래

김지현 연구위원

OpenAI에서 공개한 챗GPT3.5 출시 후 금융업에 AI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다. 챗GPT3.5는 대화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대화스타일과 상황을 학습하고 적용 가능해 국내외 은행은 챗봇 고도화를 시작으로 자산관리서비스 등에 챗GPT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핀테크도 관련 기술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 금융기관과의 협업과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보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유출, 윤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도입 움직임 등이 있어 향후 금융영역에 챗GPT의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챗GPT 3.5 등장으로 금융업 전반에 AI(인공지능) 열풍 가속화

- 지난 11월 美 인공지능연구소 OpenAI가 공개한 챗GPT 3.5는 출시 2개월만에 월간 사용자 1.23억명에 도달하며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중 가장 빠르게 소비자 관심 증가
 - 챗GPT란 생성형 AI로 인간언어를 분석하는 인식 단계를 넘어 특정 의미를 표현하는 텍스트, 음성 등 언어나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모델
- 챗GPT 3.5는 대화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거나 질문내용을 기억해 답변할 수 있고, 다양한 대화스타일과 상황을 학습 및 적용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처리 가능
 - GPT3.5의 인공신경망 파라미터 개수는 1,750억 개로 기존 GPT2의 116배
- Forbes는 2023년 은행·핀테크산업의 트렌드로 ‘챗봇의 해’를 선정했으며, 챗GPT 등장으로 향후 AI활용도가 높은 금융업에서 AI 이용 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기업 AI 이용률이 50%인 반면 글로벌 금융기관 AI 이용률은 78%이며, 국내 금융AI 시장은 연 3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오픈 AI의 챗GPT 모델

| 모델 | 출시일 | 파라미터 개수 | 특징 |
|--------|------|---------|---|
| GPT1 | 2018 | 1.2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링 안된 데이터 학습 • 특정 주제 분류 및 분위기 분석 |
| GPT2 | 2019 | 15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스크 컨디셔닝, 제로샷 러닝 및 태스크트랜스퍼 등 활용한 대량 데이터 학습 • 인간과 구분 어려울 정도의 자연스러운 텍스트 생성 |
| GPT3 | 2020 | 1,750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처럼 작문, 번역 코딩 가능 |
| GPT3.5 | 2022 | 1,750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의 숨은 맥락 이해 • 창작, 작곡 가능 |
| GPT4 | 2023 | 1조개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생성 추가 및 이미지를 이해 • 26개의 다국어 지원 기능 향상 및 정보 신뢰도 향상 • 경영, 의료, 법률 등 전문직종에서 활용 가능 |

자료 : 한국인공지능협회,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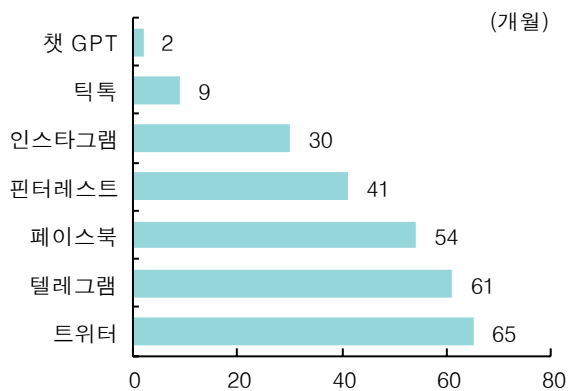
■ 챗GPT는 향후 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 신용모델 구축, 개인화된 상품 제공, 업무 자동화까지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활용 가능

- (고객서비스 개선) 챗GPT를 통해 챗봇과 AI비서가 고객 상담기록을 분석하여 고객 응대하며 상호작용 기반 고객서비스 자동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가능
- (금융사기 방지) 데이터 기반 챗GPT가 고객 행동기반 이상 행동과 금융사기 패턴을 감지하고 신용관리업무 담당자에게 알림 및 절차를 자동화하여 금융사기 탐지 고도화
- (개인화된 상품 제공) GPT가 생성한 투자 제언 등을 활용해 고객 응대시 고객 배경, 투자위험관리 성향, 투자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업무 자동화) 계약서 분석 및 작성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규격화된 업무와 문서작성 자동화, 이메일과 SM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 (신용모델 구축) 대출 처리 시 대출자의 재무 상황, 신용 이력, 소득 등을 자동으로 분석·평가해 심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인적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GPT-3 기술 없이는 간과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식별하며 신용 결정과정을 개선

■ 글로벌 은행은 다양한 영역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 도입과 확장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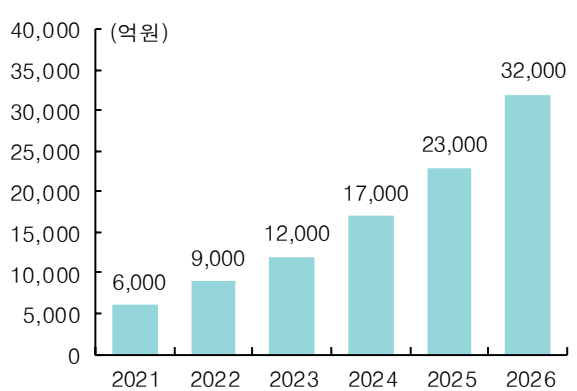
- Morgan Stanley는 챗GPT4를 이용하여 동사의 100,000개가 넘는 리서치 자료를 분석한 AI툴을 개발해 재무관리사 3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
 -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 WM부문의 재무관리사(약 16,000명)가 고객 투자상담시 해당 AI툴을 이용해 보다 고차원적인 금융투자 상담을 제공할 계획
- Capital One은 챗봇 Eno를 통해 문자와 음성안내로 고객 니즈에 맞는 실시간 고객응대를 제공

■ MAU 100백만명 달성 소요 시간



자료 : Statista

■ 국내 금융분야 인공지능 시장규모 전망



자료 : 신용정보원

- BBVA는 AI챗봇 Alicia를 통해 고객의 지출 패턴과 재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HSBC는 금융사기 방지 업무에 AI와 챗봇을 도입하여 활용중이며, AI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이상 징후 탐지 및 돈세탁 방지를 지원

■ 국내 금융기업은 아직 시작 단계이나 챗GPT 열풍에 진화된 AI기술 접목을 확대중이며 동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업무에 도입될 전망

- 국내 은행도 이미 제공중인 챗봇과 상담AI를 집중 개선하고, 사기 방지 및 대출 심사를 위한 신용관리 모델에 접목할 가능성 높음
 - 신한은행은 챗봇을 언제 어디서든 모든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한 ‘인비지블(invisible) 은행’ 핵심 채널로 활용할 계획
 - 하나은행은 AI챗봇 서비스 ‘하이챗봇’을 전면 개편해 은행앱과 연동한 고객 개인화 서비스 도입
 - 토스뱅크도 앱내 ‘챗 GPT에게 물어보기’서비스를 추가해 시범 운영 중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챗GPT를 이용한 AI 자문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전망
 - ‘투자의 달인’을 개발한 금융 답테크 기업 (주)이노핀은 유니베스트투자자문(옛 스틱투자자문)을 인수하고 챗GPT를 이용한 AI 자문서비스 진출을 시도 중
 -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로이터와 사우스 차이나모닝 포스트로부터 뉴스를 제공받아 5분마다 새로운 기사를 자동으로 번역 및 요약해 HTS앱으로 제공

■ 핀테크와 스타트업까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자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며 향후 금융기관과의 협업 및 경쟁이 확대될 전망

- 보험 핀테크사 해빗팩토리는 보험약관을 AI 기술로 분석해 보험설계사 업무를 지원하며,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대출 심사 시간을 3일에서 1분으로 단축


■ 금융권의 AI기술 적용 분야

| 고객경험 | 마케팅 및 영업 | 리스크관리 | 후선업무 지원 |
|-------------------|---------------|--------------|----------------|
| 챗봇, 상담봇 | 로보어드바이저 | 이상거래 탐지(FDS) | AI기반 신용평가 |
| 신원인식(얼굴, 음성) | 시장예측 | 자금세탁 방지 | 프로세스 자동화(RPA) |
| 컨설팅(투자, 보험, 절세 등) | 전자문서시스템 | 불완전판매 QA | 자동심사(대출, 보험 등) |
| 공과금 자동인식, 납부 | 고객분석(VOC, 로그) | 연체 예측 및 기업진단 | 각종 서류분석 |
| 스마트 ATM | AI 스피커 | 컴플라이언스, 약관분석 | AI 관제 및 관리 |

자료 : 코스콤

- 온라인 투자연계금융기관 피플펀드는 최근 AI 기반 무료 신용관리 앱 크레딧플래닛을 출시해 알고리즘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을 개인에 맞춰 제공
 - 신용진단 탭을 누르면 'A씨는 신용점수를 최대 110점 더 올릴 수 있어요'와 같은 문구로 향후 최대 올릴 수 있는 신용점수 예측치를 확인하는 방식
- 핀테크 '뉴지스탁'은 자사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챗GPT API를 활용한 테마 분석을 추가해 투자자 보유 주식 종목에 대한 GPT포트폴리오 테마와 전망을 분석해 제공
- 스타트업 스트라이프도 GPT4를 도입해 디지털 지불 처리를 비롯한 기능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14개의 GPT4 프로토타입으로 통합 작업을 진행 중

■ 다만 데이터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 신뢰성 한계, 보이스피싱 악용 등의 문제점이 있고 인공지능 윤리와 활용원칙 정립이 필요해 금융업의 도입 범위와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챗GPT는 학습한 데이터를 이용하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최신정보가 부족한 경우 잘못된 정보 또는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 및 확산할 가능성 존재
- 언어 패턴을 학습으로 특정 개인과 매우 유사한 말투를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에 '피싱(phishing)'에 쓰일 위험도 우려
 - 최근 캐나다에서 AI로 위조한 아들의 목소리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보안의 균형을 찾기 위한 챗GPT 규제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 규제 등 활용 가능성 및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증가
 - 이탈리아는 오픈AI가 불법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성년자가 불법 자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챗GPT를 퇴출
 - EU는 AI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큰지 정의하기 위한 AI 법을 준비 중이며, 미국은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윤리지침을 공개 

■ 챗GPT 등 생성AI가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문제

| | |
|---|---|
| <p>가짜 뉴스</p> <p>챗 GPT AI가 잘못된 의학적 진단을 내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근거로 제시</p> | <p>동의 없는 정보 도용</p> <p>코파일럿 소프트웨어 코딩 자동완성 AI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논란, 美 프로그래머 매슈 버트릭이 침해 소송 제기</p> |
| <p>혐오 표현</p> <p>이루다, 테이 인종차별, 소수자 혐오 발언</p> | <p>논문, 과제물 표절</p> <p>챗 GPT 미국 뉴욕 공립학교, 국제머신러닝학회의 AI활용 제한</p> |

자료 : 뉴스미디어

■ 챗GPT에 대한 국가별 규제 동향

| 국가 | 챗GPT 규제 동향 |
|------|--|
| 이탈리아 | 개인정보 노출 및 미성년자가 불법 자료에 노출 방지를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챗 GPT 접속 잠정 차단 |
| 독일 | 이탈리아 정부에 챗GPT 차단에 대한 근거 자료 등 정보 요청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챗GPT접속 차단 결정을 논의할 예정 |
| 캐나다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문제로 오픈AI조사 착수 |
| 미국 | AI규제를 담당할 전담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 중이며, 백악관과학기술정책국이 AI 윤리지침을 공개 |

자료 : 뉴스미디어

Goldman Sachs, 소비자금융 축소 등 사업전략 변경

안 성 학 연구위원

Goldman Sachs는 금융위기 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확대해 온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부실대출 및 운영비 증가로 손실이 확대되면서 사업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 강점인 트레이딩과 IB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고액자산가 및 법인 대상의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금융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국내 금융사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나 진출 사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 Goldmans Sachs는 2022년 실적 급감에 따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략 변화 추진^[1]

- Goldman Sachs는 지난 2월 28일 주주의 날(Goldman Sachs Investor Day 2023)에서 소비자금융 부문 확대 전략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 전략 변화를 모색
 - 모두를 위한 은행(the bank for everyone) 전략에서 특정 계층 및 사업부문에 집중하는 은행(the bank for somebody)으로의 전환을 추진
- Goldman Sachs는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IB 및 자산운용 수익 급감, 소비자금융 부문 실적 부진 등으로 2022년 순이익이 전년비 48.0% 감소^[2]
 - 부실대출과 운영비 증가로 소비자금융 부문은 '20년 이후 약 30억 달러 손실 발생
 - 반면 FICC 수익이 전년비 38.3% 증가하는 등 트레이딩 부문의 경쟁우위는 더욱 증가

■ Goldman Sach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 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자산관리부문 뿐만 아니라 소비자금융 사업까지 확대

- Goldman Sachs는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이 주된 핵심사업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대형 소매은행으로 전환 시도
- 특히 WM 후발주자로, 리테일 자산관리 및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금융 등 관련 부문의 기업인수 및 제휴를 통해 빠른 성장을 시도
 - 인터넷은행 Marcus('16) 및 로보어드바이저 Marcus Invest('21) 출시, 개인자산관리회사 Clarity Money('18) 및 BNPL 업체 GreenSky('21) 인수 등 온라인 리테일 사업을 본격화


[1] "Goldman Sachs doesn't want to be everyone's bank, but it has to be someone's", Wall Street Journal, 2023.3.4

[2] "Morgan Stanley retains edge over Goldman Sachs due to booming wealth unit", FT, 2023.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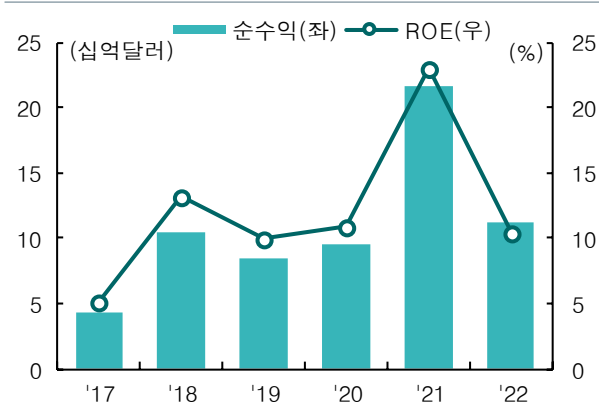
■ 향후 Goldman Sachs는 트레이딩 및 IB 등 기존 강점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및 법인 대상 자산관리부문 등 특정 WM 부문으로 세분화·집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

- Goldman Sachs는 전통적인 강점인 트레이딩 및 IB 부문에 대한 역량을 더욱 강화
 - FICC 등 트레이딩 부문은 여전히 이익기여도가 높으며 IB 부문은 최근 시장불황으로 수익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
- 트레이딩 및 IB 영업 과정에서 확보된 기업고객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가 등 고액자산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부문을 강화할 계획
- 반면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진출했던 신용카드 부문의 신사업을 중단하는 등 경쟁우위가 미약한 소비자금융 부문은 축소할 방침
 -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금융에 대한 진출이 성공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美 통신업체 T-모바일과의 합작 신용카드 출시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사업 중단
- 한편 수익성 회복을 위해 약 3,200명의 직원을 감축(전체 인원의 약 6%)하고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에 착수

■ 국내 금융사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다각화 전략이 요구되나 해당 사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경쟁 금융사의 사업 전략 및 성공 사업부문에 대한 단순 벤치마크보다는 진출시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다각화 전략이 바람직
 - 진출 사업부문에 대한 자사의 경쟁력 분석과 향후 시장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 금융사가 현재 보유한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연계한 사업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고려 

■ Goldman Sachs 수익성 추이



자료 : Goldman Sachs IR, Bloomberg

■ Goldman Sachs의 주요 리테일 사업 확대 연혁

| 연도 | 주요 사업 내용 |
|-------|----------------------------------|
| 2012년 | Dwight Asset Management(퇴직연금) 인수 |
| 2016년 | 인터넷은행 Marcus 출범 |
| 2018년 | 개인자산관리회사 Clarity 인수 |
| 2019년 | 애플과의 제휴 통한 신용카드 발급 |
| 2020년 | 저가항공사 Jet Blue와 제휴로 휴가비 대출사업 진출 |
| 2020년 | Wall Mart와의 제휴로 소기업 대상 대출업 진출 |
| 2021년 | 로보 어드바이저 Marcus Invest 출시 |
| 2021년 | BNPL 업체 GreenSky 인수 |
| 2021년 | GM 신용카드 부문 인수 |

주 : Goldman Sachs IR, 주요 언론

애플, 간편결제에 이어 후불결제(BNPL) 서비스 출시

윤석진 연구원

3월 28일 애플은 미국에서 후불결제(BNPL)서비스 ‘Apple Pay Later’를 출시하며 금융업으로의 확장을 한층 본격화했다. 최근 국내 도입된 애플페이를 바탕으로 한국 간편결제 시장 내에서도 애플의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안착 여부가 향후 ‘Apple Pay Later’ 국내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공략한 서비스로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시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발빠른 대응력이 요구된다.

■ 애플, 미국에서 후불결제(BNPL) 서비스 ‘Apple Pay Later’ 출시하며 금융업 확장 본격화¹⁾

- 애플은 3월 28일부터 일부 애플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Apple Pay Later’ 시범 운영을 실시, 수개월 내 미국의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
- ‘Apple Pay Later’는 애플워렛 앱을 통해 \$1,000까지 빌려 상품을 선구매한 뒤 일정기간 동안 구매대금을 분납하는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시스템
 - 모든 애플페이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이자와 수수료 없이 상품대금을 6주 동안 4회에 걸쳐 납부 가능
- 일종의 소액 대출 비즈니스로서, 자회사 Apple Financing LLC를 통해 독자적으로 차주 신용평가 및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애플의 금융업 확장 본격화로 해석

■ 최근 국내 도입된 애플페이를 바탕으로 한국 간편결제 시장 내 애플 영향력 급성장 중


-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간편결제 애플페이가 2023년 3월 한국에 진출
 - 이미 7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인 애플페이는 2014년 출시 후 9년 만에 국내 도입
- 국내 상륙 후 애플페이 등록 건수는 출시 하루만에 100만 건을 상회하는 등 충성도 높은 아이폰 사용고객을 기반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 중
- 높은 보안성 및 웨어러블 기기(애플워치)를 통한 호환성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기능 미지원, NFC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만 결제 가능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
 - 국내 매장 중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한 NFC 단말기 설치 가맹점은 10% 내외

[1] “Apple launches ‘buy now, pay later’ service in the US”, FT, 2023.0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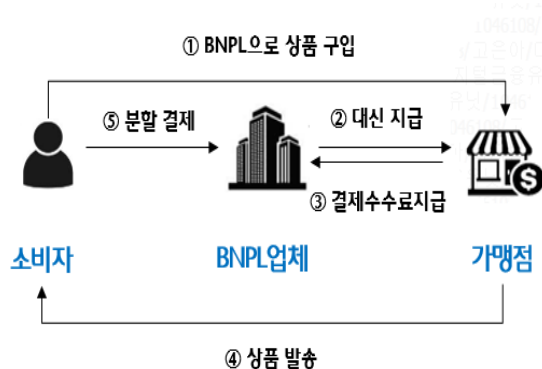
■ 글로벌 BNPL시장, 연평균 44% 고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시장 환경은 비우호적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는 전 세계 BNPL 시장 규모가 2021년 1,251억 달러에서 2030년 3조 2,6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44%)
-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BNPL시장에 진입, 각각 월 15~30만원 내 후불결제 기능을 지원
 - 자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학생·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썬파일러(Thin Filer)를 중심으로 고객 확장 중
- 한편, BNPL은 금융거래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고객층의 유입이 용이하다는 특성상, 연체율을 비롯한 여신 건전성 관리가 어렵고 신용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도 존재
- 또한 시장 내 경쟁 과열·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스웨덴의 대표적 BNPL 기업인 클라르나(Klarna)의 기업가치가 1년 만에 85% 폭락하는 등 최근 환경은 비우호적
 - 클라르나(Klarna) 기업가치 : '21.6월 460억 달러 → '22.7월 67억 달러(-85.4%)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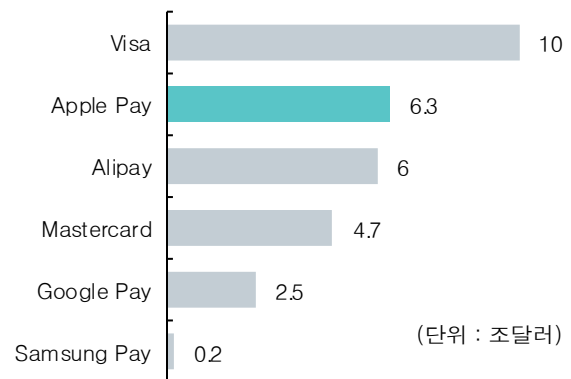
- ‘Apple Pay Later’의 한국 출시 시점은 미정이며, 최근 도입된 애플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시장 안착 여부가 향후 애플의 한국 BNPL시장 진출의 관건이 될 전망
 -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각종 무이자 혜택이 많아 국내 BNPL시장 내 애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도 미지수
- 간편결제, 후불결제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공략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비가 필요
 - 빅테크의 금융업 확장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새로운 경쟁구도와 규제 변화에 맞춘 금융권의 발빠른 대응력이 요구 

■ BNPL서비스 결제 흐름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 결제사 글로벌 처리금액 비교



자료 : Statista, 2021년 결제액 기준

금리: 은행권 불안에서 경기 우려로 시선 이동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은행권 불안감이 완화되며 상승하다 미국 경기·고용지표의 예상치 하회로 반락했다. 국내금리도 대외금리 방향성에 연동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둔화 및 수출 부진 지속 등에 상승폭을 축소했다. 은행권 부실 우려가 진정 양상을 보임에 따라 시장의 이목이 경기침체 우려로 이동한 가운데,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불안도 재부각되었다.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국내외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은행권 불안 완화로 상승하다 美 경기·고용지표의 예상치 하회에 반락

- 美 퍼스트시티즌스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인수 소식 및 금융당국의 은행권 추가 지원 논의 등이 전해지며 미국·유럽 은행권 위기는 다소 진정 국면에 진입
- 2월 PCE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3월 ISM 제조업 지수 및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재부각
 - 美 PCE/근원PCE물가 (% , YoY) : 1월 5.4/4.7 → 2월 5.0/4.6 (예상 5.1/4.7)
 - 美 ISM제조업/서비스업지수 : 2월 47.7/55.1 → 3월 46.3/51.2 (예상 47.5/54.4)
- 미국 고용지표 또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시장 내 경기 우려를 가중
 - 美 ADP 민간고용 증감 : 2월 26.1만 명 → 3월 14.5만 명 (예상 21만 명)
- 美 금리는 은행권 우려 완화로 상승하다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로 반락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3.24일 3.78/3.38 → 30일 4.13/3.55 → 4.6일 3.83/3.31


■ 국내금리도 대외금리 방향성에 연동되는 가운데 물가 둔화·수출 부진에 상승폭 축소

- 한국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및 기저효과에 힘입어 둔화 흐름 지속
 - 한국 CPI/근원CPI (% , YoY) : 1월 5.2/5.0 → 2월 4.8/4.8 → 3월 4.2/4.8
- 3월 수출은 -13.6%(yoy)로 감소세를 지속하며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며 對중국 수출(-33.4%)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 국내금리는 SVB發 금융 불안 완화되며 상승하다 수출 부진·물가 둔화에 상승폭 축소
 - 국고 3/10년 금리(%) : 3.24일 3.16/3.21 → 4.3일 3.34/3.39 → 7일 오전 3.26/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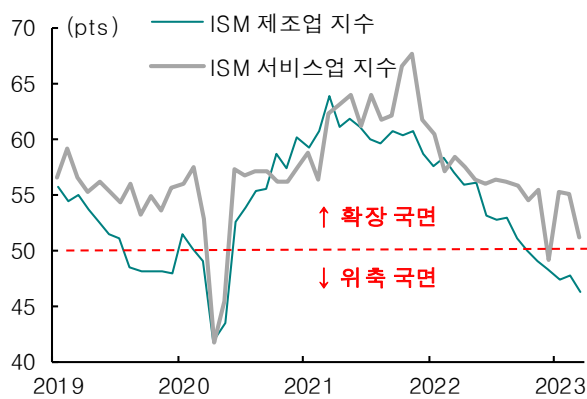
■ OPEC+의 추가 감산 결정, 유가 상승압력 증대로 대내외 인플레이션 불안 재점화

- 사우디를 비롯한 OPEC+ 산유국들은 원유 수요 둔화로 인한 유가 하락 방어 조치로 5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일 116만 배럴 감산할 계획임을 발표(4.2일)
 - 이미 3월부터 일평균 50만 배럴을 감산 중인 러시아도 12월까지 감산 시한을 연장
- 이에 OPEC+의 감산 규모는 기존 감산 목표인 일일 200만 배럴을 포함해 추가 116만 배럴, 러시아 50만 배럴로 총 366만 배럴 수준(일일 전세계 수요의 3.7%)
 - 최근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 차질 우려 또한 공급 악화 요인
-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을 반영해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상승압력 재확대
 - WTI선물(USD/barrel) : 1.3일 \$76.7 → 3.17일 \$66.7 → 4.6일 \$80.7
- 국내외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에 국제유가 안정 효과가 크게 기여 중임을 감안할 때, 원유 공급 불확실성 증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을 재점화할 소지
 - 국내의 경우, 에너지 원가 상승에 따른 2차 파급효과(전기·가스료 인상 등)도 우려

■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되나 국내외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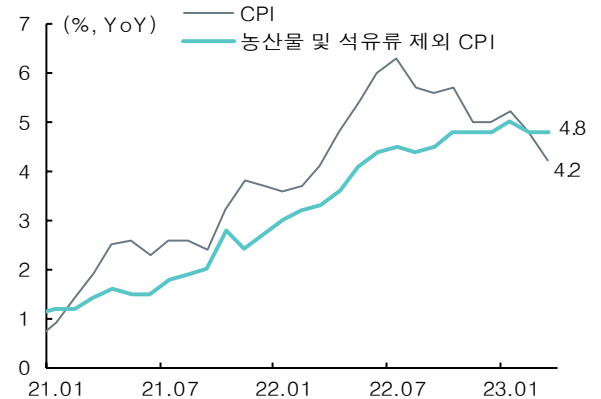
- 은행권 부실 우려가 진정 양상을 보이며 시장참가자들의 이목이 경기침체 우려로 이동한 가운데, 美 채권시장에 반영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수준
 - 美 선물시장 내재정책금리는 23.7월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을 반영(Bloomberg)
- 4월 금통위에서는 SVB發 은행위 기 이후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가 약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이 전망되나, OPEC+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재상승·국내 근원물가의 더딘 둔화추세 등을 감안 시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0%~3.45%, 3.25%~3.45% 범위로 전망 

■ 미국 ISM 제조업/서비스업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 국내 소비자물가/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외환: 점차 고개 드는 안전자산 선호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하였음에도 위안화 약세 흐름 속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수급여건 악화로 1,300원을 상회하였다. 연준의 금리인상 마무리 기대 등으로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 우려 본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및 유가 급반등 등 대외충격 불안요인이 커진데다 4월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은 원/달러 환율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은행권 리스크 진정과 달러화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 퍼스트시티즌스의 SVB 인수 결정(3.27일)으로 은행 불안이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美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 약세 지속
-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OPEC+ 감산 결정, 예상보다 부진한 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한때 1,320원대를 상향 돌파
- 아울러, 무역·경상수지 적자 지속, 외국인 주식 외국인 주식 매도(4.3~4.6일 1.1조 원 순매도)에 따른 수급 악화,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으로 하락 제한
 - 3월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적자 지속('23.1~3월 224억 달러 적자)
 - 2월 경상수지는 -5.2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적자 지속('23.1~2월 47.3억 달러 적자)


■ [국제 환율]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달러화 약세

- 달러화는 OPEC+ 감산 소식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고용 등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 긴축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약세 흐름 재개
 - 3월 美 ISM 제조업 PMI(46.3)와 2월 구인건수(전월비 69만건 감소) 모두 예상 하회
- 유로화는 도이치뱅크 위기설이 빠르게 진정되었고, 3월 독일과 유로존의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ECB 긴축에 대한 경계가 유지되며 강세
- 엔화는 은행권 위험이 완화되면서 안전통화인 엔화 매수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점차 달러화 약세 등에 연동되어 다시 상승
- 위안화는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의 예상치 상회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 차이신 PMI가 예상을 밑돌면서 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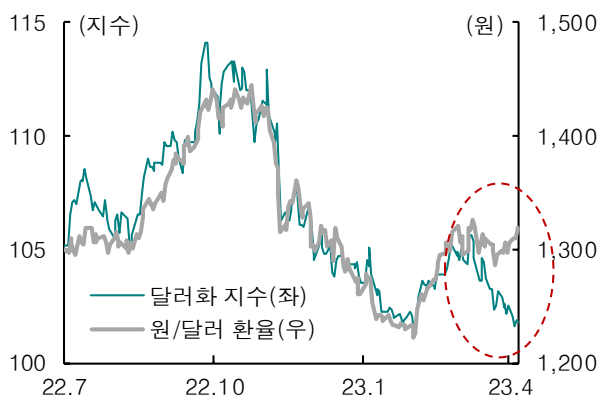
■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위험 부각

- 연준이 고강도 통화긴축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는 오히려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기대로 이어지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
 - 「경기침체 우려 →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기대 → 달러 약세」 경로
-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 등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 되면서 안전통화 수요 증대를 통한 달러화 강세 압력도 부상
 - 「경기침체 우려 → 안전통화 수요 증가 → 달러 강세」 경로
- 美 구인건수와 제조업 PMI에 이어 민간고용(14.5만명)과 비제조업 PMI(51.2)까지 잇따라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상하며 달러화 약세 진정
 - 시장은 부진한 경제지표를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하면서 달러화 상승(4.6일 102.1)
- 경제지표 둔화를 금리인하 기대로 해석하던 시장이 점차 안전자산 선호를 인식하면서 달러화 움직임도 혼조세를 보이는 등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

■ 달러화 약세 흐름은 유효하나,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움직임을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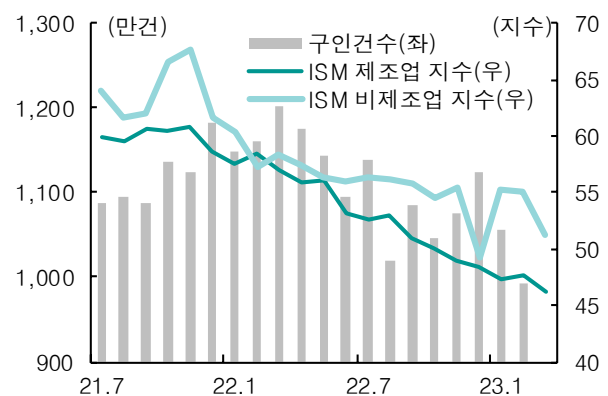
- 연준의 금리인상 의지 약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등이 경기침체 우려를 점증시킬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상하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이 제한될 가능성
 - OPEC+發 유가 상승압력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안 또한 달러 강세 요인
- 대내적으로는 수출부진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4월 외국인 배당시즌을 맞아 역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요인에 의한 원/달러 환율 불안 가능성
 - 다만 당국의 경계감이 상단을 제한하며 2주간 원/달러는 1,280~1,330원 전망 

■ 달러화 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미국 구인건수, ISM PM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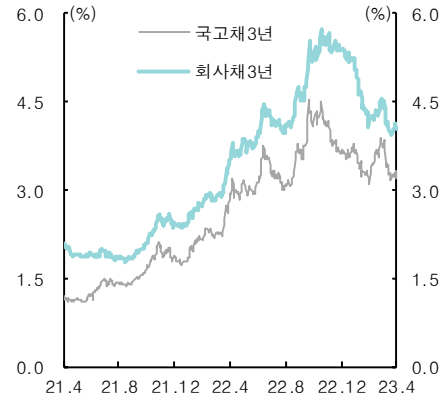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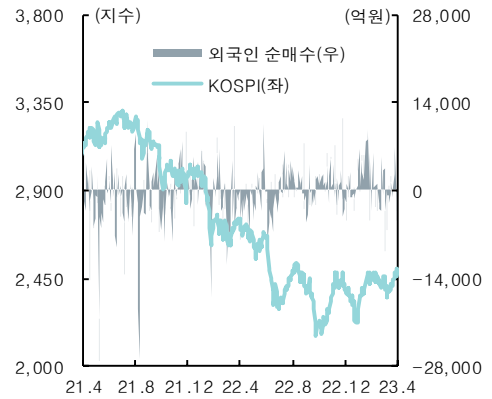
금리

| 단위: % | 콜 (1일) | CD (91일) | 산금채 (1년) | 회사채 (AA-, 3년) | 국고채 (3년) | 국고채 (5년) |
|--------|-----------|-------------|-------------|------------------|-------------|-------------|
| '21년말 | 1.44 | 1.29 | 1.66 | 2.42 | 1.80 | 2.01 |
| '22년말 | 3.38 | 3.98 | 4.17 | 5.23 | 3.72 | 3.74 |
| 2월말 | 3.46 | 3.59 | 3.89 | 4.48 | 3.80 | 3.83 |
| 3월 31일 | 3.57 | 3.59 | 3.54 | 4.07 | 3.27 | 3.27 |
| 4월 3일 | 3.45 | 3.59 | 3.56 | 4.14 | 3.34 | 3.34 |
| 4월 4일 | 3.44 | 3.59 | 3.51 | 4.08 | 3.28 | 3.25 |
| 4월 5일 | 3.46 | 3.59 | 3.51 | 4.07 | 3.26 | 3.23 |
| 4월 6일 | 3.40 | 3.58 | 3.48 | 4.02 | 3.21 | 3.19 |



주가

| | KOSPI (지수) | 거래대금 (억원) | 거래량 (백만주) | 외인순매수 (억원) |
|--------|---------------|--------------|--------------|---------------|
| '21년말 | 2,977.7 | 87,275 | 461 | -2,184 |
| '22년말 | 2,236.4 | 60,365 | 361 | -1,437 |
| 2월말 | 2,412.9 | 92,742 | 530 | -2,868 |
| 3월 31일 | 2,476.9 | 129,034 | 723 | 6,877 |
| 4월 3일 | 2,472.3 | 113,003 | 812 | -1,641 |
| 4월 4일 | 2,480.5 | 134,969 | 833 | -3,127 |
| 4월 5일 | 2,495.2 | 98,119 | 633 | -175 |
| 4월 6일 | 2,459.2 | 113,327 | 751 | -4,915 |



환율

| 단위: 원 | 원/달러 | 원/100엔 | 원/위안 | 원/유로 |
|--------|---------|---------|-------|---------|
| '21년말 | 1,188.8 | 1,032.8 | 187.1 | 1,352.4 |
| '22년말 | 1,264.5 | 950.3 | 181.5 | 1,349.0 |
| 2월말 | 1,322.6 | 971.5 | 190.8 | 1,398.8 |
| 3월 31일 | 1,301.9 | 980.6 | 189.5 | 1,411.4 |
| 4월 3일 | 1,316.5 | 993.9 | 191.4 | 1,435.0 |
| 4월 4일 | 1,315.8 | 999.0 | 191.3 | 1,441.2 |
| 4월 5일 | 1,310.5 | 997.9 | 190.5 | 1,428.8 |
| 4월 6일 | 1,319.1 | 1,000.8 | 191.8 | 1,4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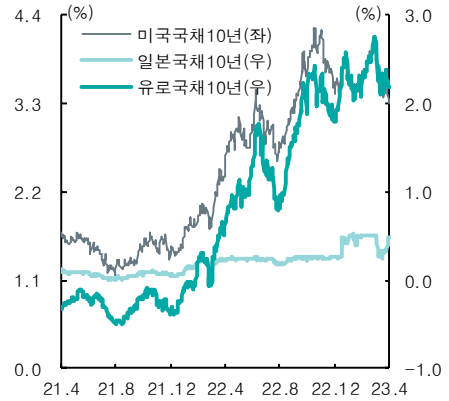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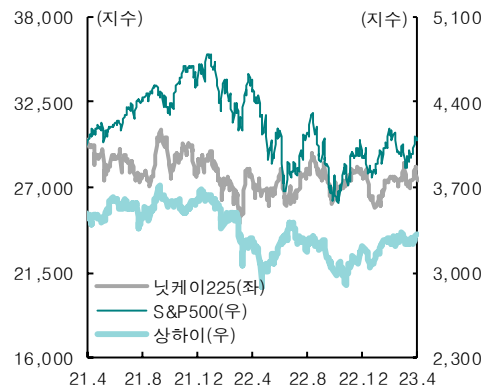
:: 금리

| 단위: % | 미국 | | | | 일본 | 유로 |
|--------|------|--------|------|-------|-------|-------|
| | 실효FR | 리보(3월) | 국채2년 | 국채10년 | 국채10년 | 국채10년 |
| '21년말 | 0.07 | 0.21 | 0.73 | 1.51 | 0.07 | -0.18 |
| '22년말 | 4.33 | 4.77 | 4.43 | 3.87 | 0.42 | 2.57 |
| 2월말 | 4.57 | 4.97 | 4.82 | 3.92 | 0.51 | 2.65 |
| 3월 31일 | 4.83 | 5.19 | 4.03 | 3.47 | 0.35 | 2.29 |
| 4월 3일 | 4.83 | 5.22 | 3.96 | 3.41 | 0.39 | 2.26 |
| 4월 4일 | 4.83 | 5.22 | 3.83 | 3.34 | 0.43 | 2.25 |
| 4월 5일 | 4.83 | 5.21 | 3.78 | 3.31 | 0.48 | 2.18 |
| 4월 6일 | 4.83 | 5.20 | 3.83 | 3.31 | 0.47 | 2.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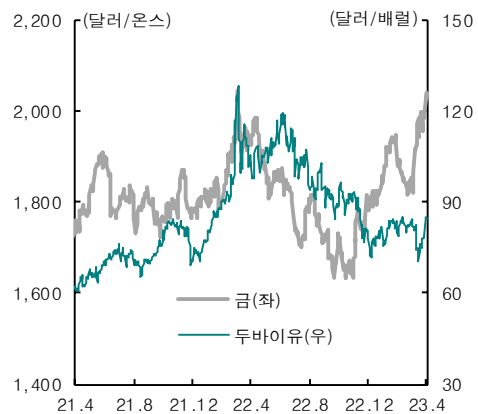
:: 주가

| 단위: 지수 | S&P500 | 닛케이225 | 상하이종합 | Euro Stoxx |
|--------|---------|----------|---------|------------|
| '21년말 | 4,766.2 | 28,791.7 | 3,639.8 | 4,298.4 |
| '22년말 | 3,839.5 | 26,094.5 | 3,089.3 | 3,793.6 |
| 2월말 | 3,970.2 | 27,445.6 | 3,279.6 | 4,238.4 |
| 3월 31일 | 4,109.3 | 28,041.5 | 3,272.9 | 4,315.1 |
| 4월 3일 | 4,124.5 | 28,188.2 | 3,296.4 | 4,311.1 |
| 4월 4일 | 4,100.6 | 28,287.4 | 3,312.6 | 4,315.3 |
| 4월 5일 | 4,090.4 | 27,813.3 | - | 4,298.4 |
| 4월 6일 | 4,105.0 | 27,472.6 | 3,312.6 | 4,309.5 |



:: 환율/상품

| | 환율 | |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 |
|--------|---------|-----------|-----------------|-------------|
| | 엔/달러(엔) | 달러/유로(\$) | Dubai(\$/배럴) | Gold(\$/온스) |
| '21년말 | 115.09 | 1.138 | 77.2 | 1,814.1 |
| '22년말 | 131.27 | 1.071 | 78.8 | 1,826.2 |
| 2월말 | 136.13 | 1.058 | 81.9 | 1,836.7 |
| 3월 31일 | 132.76 | 1.084 | 78.1 | 1,986.2 |
| 4월 3일 | 132.42 | 1.090 | 84.1 | 2,000.4 |
| 4월 4일 | 131.69 | 1.095 | 85.1 | 2,038.2 |
| 4월 5일 | 131.30 | 1.090 | 84.9 | 2,035.6 |
| 4월 6일 | 131.77 | 1.092 | 84.6 | 2,026.4 |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8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4월 7일 인쇄

2023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8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